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博物館学と女性の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李, 仁淑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24

博物館学と女性の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李仁淑（京畿道博物館）

I

筆者は、博物館的観点から、そして女性の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に対して見解を述べ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みなさまからすでに多くの話が出てきたので、簡単に展示会観覧の感想を話そうと思う。大げさな論議よりは、ただいくつかの部分的なことについて指摘したい。

博物館学的な観点から単純な「もの」の羅列ではなく、概念にそった展示、多くの「もの」が語ってくるような意味がある流れで通す—contextが通じる—ことがどれほど難しいかを今更ながらに感じる。実務にあたるものの立場から今回の展示をみると、その間、担当者がどれほど大変で、多くの努力を傾けたのかが実感される。展示室の構造や位置に対して、とくに限られた空間にはじまる悩みが多かったと思われる。

今回、民博における韓国文化の展示は、相当な研究結果と悩みを経て作りだされた展示といった感じを受け、その間の苦労に対して敬意を表する。ここに参加して、この場所で意見を述べることに感謝し、うれしさを感じる。

II

1). 全体的に展示を通して、現在、または「現代韓国人の日常」をうかがわせるうえでは、少し不十分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る。日本ともっとも近い韓国について、普遍的な韓国人の生きている姿「生」をみせるうえで、どれほど忠実なのかについて質問してみたい。いいかえれば、とても専門家的な立場から韓国人を眺めてみた展示ではないかと疑ってみたい。韓国に対して全く常識がなく、一般人を対象とし、アマチュアにも簡単に理解され、記憶に残る展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展示室だけをみれば、韓国人のもっとも日常的な生活に対する展示が不十分であり、儀礼生活が日常の風習として誤解される下地さえあると思われる。もちろん、現代の地球的で、普遍的な生き方「生」のなかで、韓国だけに特徴的なものを選び分けて展示するという事は、どれほど難しいかを実感できる。

2). 展示室内に、祭祀膳がすべて3ヶ所に分けられていることは、全体的に限りがあ

박물관학과 여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문화 전시

李仁淑(京畿道博物館)

I.

본인은 박물관학적인, 그리고 여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문화 전시에 대하여 견해를 말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므로 간단하게 전시회 관람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거창한 논의보다는 다만 몇가지 부분적인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박물관학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물건의 나열이 아니라 개념에 따른 전시, 많은 물건을 어떤 이야기가 있도록 의미있는 흐름으로 켜다 - context가 통하는 -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그 간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이고 큰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전시실 구조 및 위치에 대해서,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비롯된 고민이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이번 民博의 한국 문화 전시는 상당한 연구 결과와 고민을 거쳐 만들어진 전시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여기에 참여하여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하게된 것을 고맙고 보람되게 느끼는 바이다.

II.

1). 전체 전시를 통해, 현재 또는 '현대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데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보편적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기에 어느정도 충실한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고 싶다. 다시 말하면,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국인을 바라본 전시가 아닐까 의문해 본다. 한국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하여 아마추어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기억에 남을 전시어야 하겠다.

전시실만을 둘러보면, 한국인의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상에 대한 제시가 미흡, 의례생활이 일상의 풍습으로 오해될 소지마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대의 지구적인 보편적 삶 속에서 무언가 한국만의 특징적인 것을 가려내어 전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る空間を考えると、とても強調され、比重が大きすぎて、結果的に普遍的・典型的な韓国人の日常と全体的な生き方「生」に対する説明を見落とす可能性もあると思われる。

3). これから替える部分というのが、海外コリアンの文化と植民地文化の代わりに設置された現代工芸、スポーツ文化、キリスト教文化は多少興味を引くものではあるが、左側壁面のほとんど半分を占めており、とても多くの空間を割き、反復する多くの展示物で強調されている。これらが現代都市と田舎の韓国人の生き方「生」に、果たしてどれくらい代表性があるのか疑われる。現在、韓国の代表的大衆文化の伝達において、これらの要素の選定だけでは十分でないとする。

4). 衣食住の展示において、韓国人の日常的な衣生活でもっとも基本になる韓服の要素がまず必須として提示された後、特殊な用途のものが設置されたならばよかっただろう。(たとえば韓服のチマ、チョゴリ、パジ<ズボン>、マゴジャ<上着>、ポソン<足袋>、コジェンイ<下着>など...)。外国とは異なる伝統韓服など、日常的な服飾の例示がなく儀礼用だけをみせたことは、むしろ混同を招くかもしれない。日常生活に対する理解が先行された後、儀式生活を理解することが順序であるためである。

5). 上記のような脈絡からも、住居生活でも基本となる韓国家屋の構造が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まず示され、酒幕が設営されたとしたら、もう少し見る側の理解に役立ったであろう。

6). さまざまなものをすべて展示し、みせるためには十分でない展示空間を解消させるためには、韓国の扉や大門、家屋構造などの模型や絵を利用し(隣にある中央アジアや中国の展示のように)、天井や大型壁面で処理したならよかっただろう。

7). 全体的にKorean genderに対するアプローチがほとんど欠如している。比較論的な観点から韓国だけの女性文化にすぎない特性とその属性をエッチングしてみせればよかっただろう(たとえば、男女七才不同席、砧石、教育熱、チマパラム<スカートの風>など...)。

社会性がある主題を可視的に表現するのは難しい点であるが、とくに儒教文化における女性の居場所と位置、そしてまた現在変化している女性の位相などを表現できないだろうか。

アンバン(内室)にいる老婦人が生活する姿や酒幕における酒母の役割などを提示してくれたなら、いい比較になったであろう(婦人がいない母屋暮らしや酒母がいない酒幕は韓国人の生き方「生」から想像しにくいものである)。

2). 전시실 내에 제사상이 모두 세 곳에 차려져 있는 것은 전체 제한된 공간을 생각할 때 너무 강조되어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보편적, 전형적 한국인의 일상과 전체 삶에 대한 설명을 놓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앞으로 바뀔 부분이라고 하지만, 해외 한민족 문화와 식민지 문화의 대신으로 설정된 현대공예, 스포츠문화, 크리스토폴 문화는 다소 흥미를 끄는 것이긴 하지만, 전시실의 좌측 벽면의 거의 반을 모두 차지하여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반복되는 많은 물품들로 강조되어 있다. 이것들이 현대 도시와 시골의 한국인의 삶에서 과연 어느정도 대표성이 있는가 의심이 간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 대중문화 전달에 있어서 이 요소들의 선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 衣食住의 전시에 있어서, 한국인의 일상적인 衣生活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복의 요소들이 먼저 필수적으로 제시된 후에 특수 용도의 것들이 설정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복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두루마기, 버선, 고쟁이 등...) 외국과는 다른 전통 한복등 일상적인 복식의 예시 없이 의례용만 보여진 것은 오히려 혼돈을 초래할지도 모르겠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난 후 의식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5). 위와 같은 맥락에서, 또한 주거생활에서도 기본이 되는 한옥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먼저 예시되고 주막이 설정되었더라면 좀 더 나은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 다양한 것을 모두 전시하여 보여주기에 부족한 전시 공간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한국의 연이나 대문, 가옥구조 등의 모형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옆의 중앙아시아나 중국실에서처럼) 천장이나 대형 벽면으로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7). 전체적으로 Korean Gender에 대한 어프로우치가 거의 결여되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만의 여성 문화가 지니는 특성과 그 속성을 부각시

- 8). 酒幕のオンドルに油紙が貼られたうえで、ヒーティングになっていればよ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オンドルの部屋を掃いて拭く主婦のつつましい仕事に手で触れ、焚き口に近いオンドルの暖かさをして自ら感じられるようにしたなら、錦上に花を添えていただろう。
- 9). 細かい点では、檀君像の下にある磚を展示した意味がはっきりしなかった。
- 10). 土を盛り上げた祖先の墓と墓の手入れ、全国民が名節になればすべて参加する墓参り風俗など、ほかの国にはみられない韓国だけの固有の風習などが必ず展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III

結論的に基層文化、庶民文化にだけ偏りすぎたようで、一般生活よりは儀礼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ようである。欲をいえば、この展示をみて、韓国を訪問した人がソウル見物しながら、さまざまな階層の韓国人と出会い、感じるような印象と理解を実際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展示が普遍的ながらもリアルで一貫性をもたせてつくり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今回の展示が、もっとも日常的であり、典型的で大多数をしめる韓国人の生活している姿「生」をみせるうえで、どれほど適合しているのかをもう一度みてみることを望む。

켜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칠세 부동석, 다듬잇돌, 교육 열, 치맛바람, 등 ...)

사회성 있는 주제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낸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지만, 특히 유교문화에서의 여성의 자리와 위치 그리고 또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위상 등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

안방 마나님의 생활 모습이나 주막집에서의 주모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더라면 좋은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마님 없는 안채 살림이나 주모 없는 주막은 한국인의 삶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8). 주막집의 온돌에 장판이 깔리고 히팅이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온돌방을 쓸고 닦는 한국 주부의 알뜰한 손길과 따뜻한 아랫목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몸소 느껴보게 했더라면 더욱 금상첨화였다고 생각된다.

9). 세부적으로는, 단군상 아래 놓인 埽돌 전시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

10). 봉분있는 조상의 묘와 묘 가꾸기, 전국민이 명절이면 다 참여하는 성묘 풍습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 풍습 등이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적으로 기층문화, 서민문화에만 너무 치우친 것 같고, 일반 생활상 보다는 의례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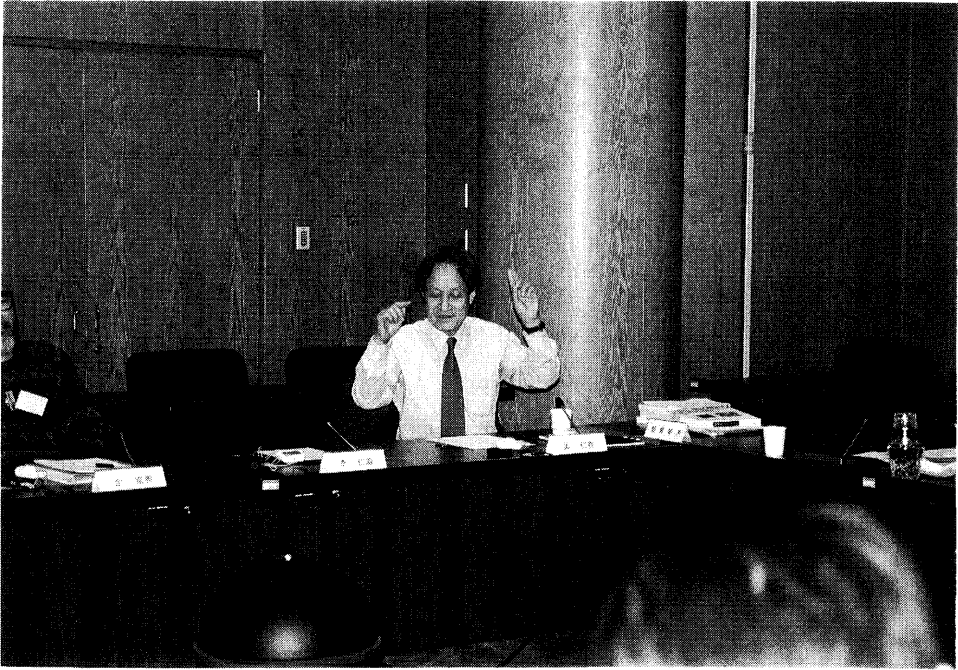
욕심을 내자면, 관객이 이 전시를 보고 난 후,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처음 서울 구경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과 만나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과 이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전시가 보편적이면서도 리얼하고 일관되게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가 가장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대다수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기에 얼마만큼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바란다.



全京秀先生の発表 司会：島村恭則先生
李仁淑先生の発表 司会：徐栄辰先生





孟仁在先生

左から 崔鍾浩先生、鄭勝謨先生、鄭鍾秀先生、全京秀先生



